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정 광 중*

〈 목 차 〉

1. 머리말
 2.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 1) 꽃자왈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 2) 꽃자왈의 분포실태와 기능
 3. 제주도민들의 꽃자왈 이용실태
 - 1)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꽃자왈
 - 2) 4·3 사건과 꽃자왈
 - 3) 환경적 측면에서의 꽃자왈
 4. 맺음말
- ※ 참고문헌

I. 머리말

돌이켜 보면, 제주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꽃자왈'(또는 '자왈')이란 독특한 제주어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용치 않게 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 시점을 굳이 꼬집어 지적하자면, 1980년대로 돌입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라고

* 제주교육대학교 부교수

1) 꽃자왈이란 용어 자체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 범위 여부는 매우 불분명하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꽃자왈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나타나는 범위'만을 의미할 때는 「꽃자왈」을 사용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하면서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한 의미일 때는 「꽃자왈 지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하는 시점은 한국경제에 큰 박차가 가해지면서, 성장속도에도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은 시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민(濟州島民)들의 생활도 일대 혁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다가왔다. 모든 가정에는 텔레비전과 전기밥솥은 물론이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집집마다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어 들어왔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정경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끼니때만 가정마다 걱정하던 취사(炊事)문제도 연탄과 석유(등유) 등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물론, 밥만큼은 전기밥솥으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여성들도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연환경에 직접 의존하던 생활패턴이 서서히 막을 내림과 동시에, 주로 물건과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도시생활 혹은 준도시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마침 때를 같이하여,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읍이 서귀포시로 승격하는 변화도 맞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1981년 7월 1일의 일이었다²⁾. 당시로서는 제주도에 큰 시가지가 한 곳 더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도민들에게는 비약적인 발전이라 자화자찬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숨막히는 일대의 변화 속에서 자왈이나 꽃자왈이란 단어 자체는 어쩌면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리고 싶은 단어일 수도 있었다.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가깝던지 멀던 지간에 반드시 꽃자왈 지대까지 가서 해결해야만 하던 번거로운 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이 집안에 갖추어져 있었고, 부족하거나 다 떨어지면 시장에 가서 다시 사오면 되었다. 그 이전생활과는 달리,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양만큼, 또한 필요한 때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의 발전이 있었고, 작게 보면 가정경제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제주도에서는 한동안 잊어버렸던 꽃자왈이란 단어가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꽃자왈 지대가 필요 없다고 대규모로 파헤치려는 사람과 기업들이 등장했고, 행정기관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이익과 편리를 내

2) 당시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면서 시(市)로 승격되었다(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지(하권)』, 357쪽).

세워 개발권을 마구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곶자왈 지대는 그것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집단(마을) 혹은 행정기관 모두가 쓸모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적어도 1980~90년대까지는 곶자왈 지대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서, 적당히 개발해도 좋은 땅으로 인식해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과연 곶자왈은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당위성을 결정짓고 있는가.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명쾌히 따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정보를 조사했는가. 이러한 심각한 물음에 대해서는 제주도내의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제기하였고, 더불어 곶자왈 지대가 함부로 개발 대상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곶자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는 개발반대의 논리는 제주도의 현세대와 후세대가 무궁무진하게 사용해야 할 지하수 함양의 최적지이고 제주의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곳의 상록활엽수림을 핵으로 하는 제주 숲경관의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과거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곶자왈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궁극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나름대로 믿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논의의 초점은 과거 제주주민들의 곶자왈 이용실태(제3장)에 두고 있으나, 그에 앞서 곶자왈의 정확한 개념과 구성요소(제2장 제1절), 그리고 곶자왈의 분포실태와 기능(제2장 제2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곶자왈을 좀더 분명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인식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곶자왈의 개념과 분포

1) 곶자왈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곶자왈은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표준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제주 지방어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1995년 말에 제주도(濟州道)에서 편집·발행한 『제주어사전(濟州語辭典)』에 따르면, 곶자왈은 「나무와 덩

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으며(31쪽), 흔히 축약해서 사용하는 '자왈'도 똑같은 의미로 풀이해 놓고 있다(482쪽). 꽃자왈은 '꽃'과 '자왈'이란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같은 문헌에서 '꽃'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산밭의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31쪽), '고지'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³⁾.

이상과 같이 사전에서 나타나는 꽃자왈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목경관(草木景觀)이나 수목경관(樹木景觀)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해석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적으로 느껴 온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 진전된 꽃자왈의 개념은 지리학 분야에서 제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꽃자왈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곳(洞藪, 叢林)과 토심(土深)이 얕은 황무지인 자왈(磊野)이 결합된 의미"로 해석한다⁴⁾. 이처럼 지리학적 측면의 개념은 꽃자왈 지대에 나타나는 식생과 토양이라는 두 가지 자연경관 요소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지질여행』이란 연구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⁵⁾. 이 연구서에서는 꽃자왈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꽃자왈에 대한 지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고 있어서, 꽃자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제주도 지표의 70%는 아아 용암(Aa lava)에 의해 형성된 암석으로 덮여 있으며, 그러한 아아 용암의 암석 표면에는 두꺼운 클링커층(clinker layer)이 형성된다. 이 클링커층이 지표에 노출된 지역은 빗물의 투수가 잘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꽃자왈이라 부른다. 이런 클링커층은 지하에도 많이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지하수가 들어 있다(43쪽)」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지질적 특성을 전제로 한 꽃자왈의 설명에서는 지표를 형성하는 구성물질(암석)과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한편, 꽃자왈의 개념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연구자는 송시태·고기원·윤선 등 3인이다⁶⁾. 이들은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

3) 濟州道, 1995, 『濟州語辭典』, 濟州道.

4) 宋成大, 2000, 「지리적 기초」, 『北濟州郡誌(上)』, 북제주군, 93-101쪽.

5) 박기원·외 6인, 2003,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도발전연구원.

6) 송시태·고기원·윤선, 1996,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숲갈무조와 꽃자왈 지대에 관한 연구(I)」, 대한지하수환경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자료집, 63-69쪽.

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덩굴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 없는 토지(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면서, 더불어 꽃자왈 지대의 지질적 특성을 더욱 상세하게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꽃자왈 지대의 잡석들은 대부분 자갈에서부터 암괴 크기에 이르는 스킨리아(scoria), 화산탄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의 용암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잡석들은 다 공질이고 매우 각지지(very angular) 않으며 부분적으로는 로피(ropy) 또는 꼬인(twisted) 구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꽃자왈 지대는 스킨리아류(scoria flow) 또는 화성쇄설류(pyroclastic flow)에 의해 운반된 자갈과 더불어 화구로부터 방출된 화산탄 및 화산자갈이 뒤섞여 쌓인 각력층」이라고 지질학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68쪽). 나아가 송시태는 제주도에서 속칭 “꽃자왈”이라 부르는 지대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아 용암류라는 용어 대신에 「꽃자왈 용암류(Gotchawal Lava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⁷⁾.

어떻든 위에서 3인이 내린 꽃자왈의 개념은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했던 사전적인 의미나 지질적 특성만을 전제로 한 설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문적·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에서 정리한 꽃자왈의 개념과 특성을 전제로 할 때 꽃자왈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꽃자왈의 구성요소를 설정하는 작업은 꽃자왈이 제주도 자연경관의 일부분을 점유한다는 관점이나 제주도의 특이한 생태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꽃자왈이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은 후에 형성된 아주 특이한 조건을 지닌 국지적인 지대(지구)」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질적 조건 또는 지형적 조건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토양적 조건 혹은 식생적 조건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흔히 꽃자왈 지대라고 사용할 때는 가시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모호하지만,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광의적으로는 꽃자왈 지

7)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 논문, 18쪽 및 107쪽.

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부차적 요소(이것을 3차적 요소라 할 수 있음)⁸⁾까지도 포함해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조건과 배경을 토대로 하여 꽃자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형·지질적 요소(1차적 요소)는 잡석(자갈, 암괴 등), 용암류, 스크리아, 화산탄, 화산자갈, 습골 등이며, 토양적 요소(2차적 요소)에는 화산회(火山灰)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포함된다. 식생적 요소(2차적 요소)로는 이끼류, 양치류, 초지성 식물, 화초류, 수목(잡목, 침엽수, 활엽수) 및 가시덤불 등이 속하고, 부차적 요소(3차적 요소)에는 궤(바위그늘, 소형동굴), 용암동굴(중형·대형), 소지류 및 소규모 계곡⁹⁾, 이류구(泥流丘), 오름(측화산), 습지(물웅덩이), 부분적인 초지, 인위적으로 개발된 경지 등이 포함된다(<그림 1> 및 <그림 2>).

꽃자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화산활동의 결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꽃자왈 지대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꽃자왈의 분포실태와 기능

제주도 내에서도 꽃자왈 지대는 주로 어디에 분포하며,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작업은 꽃자왈의 기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시점에서는 꽃자왈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극히 저조한 실태이고, 더불어 행정기관에서조차 개발대상 지역으로만

-
- 8) 부차적 요소는 구체적으로 꽃자왈 지대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바로 그 주변부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궤, 용암동굴, 이류구, 오름, 하천지류, 계곡 등이다.
- 9) 꽃자왈 지대에는 기본적으로 큰 하천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큰 규모의 계곡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천(준용하천)의 종류나 상류에서 분기된 소규모의 지류성 소하천은 간혹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규모가 작아서 지류의 부류에도 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큰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줄기(細流)가 형성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경향을 띠면서도 지형적 특성상 한쪽 사면이나 양쪽 사면이 깊게 패여 소형 계곡이나 험곡처럼 형성돼 있는 곳들이 종종 나타난다. 꽃자왈 지대 안에서도 그런 장소에는 인적이 드문 영향도 있어, 특이한 습지성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꽃자왈 지대의 경관(Ⅰ)

[종달-한동 꽃자왈과 세화 꽃자왈이 만나는 지점으로 뒤쪽으로 손자봉, 다랑쉬오름 및 용눈이오름 등이 보인다. 이 꽃자왈 지대는 주로 가시덤불과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상록수림이 듦성듬성 나타난다.]



〈그림 2〉 꽃자왈 지대의 경관(Ⅱ)

[선홍 꽃자왈의 일부 지역으로 뒤쪽에 김녕리 묘산봉과 입산봉이 보인다. 이곳은 최근에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최대의 상록수림 경관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인식해 온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포면적이나 공간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최근 송시태의 연구에서는 지형도상에서 그 공간적인 분포범위를 산출해 내는데 성공했다¹¹⁾. 그리고 송시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신문사인 제민일보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꽃자왈 대탐사”를 특별 기획물로 연재하고 있으며,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2004년 2월 중순)에서는 55회분을 끝으로 1차 탐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이 특별 기획물은 제주주민들에게 꽃자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꽃자왈의 분포실태 관련자료는 송시태의 연구결과와 제민일보에 연재되었던 내용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꽃자왈은 기존에 통속적으로 일컬어지는 중산간 지역¹²⁾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해발 100m 이하의 해안지역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서는 분포범위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꽃자왈을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① 구좌~성산 꽃자왈 ② 조천~함덕 꽃자왈 ③ 애월 꽃자왈 ④ 한경~안덕 꽃자왈의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동→서→남서 방향의 순). 이들은 다시 용암류의 흐름에 따라 ① 구좌~성산 꽃자왈은 ① 종달~한동 꽃자왈 ① 세화 꽃자왈 ① 상도~하도 꽃자왈 ② 수산 꽃자왈로 구분되며, ② 조천~함덕 꽃자왈은 ① 함덕~와산 꽃자왈 ① 조천~대흘 꽃자왈 ① 선흘 꽃자왈로 구분된다. 그리고 ④ 한경~안덕 꽃자왈은 ① 월림~신평 꽃자왈 ① 상창~화순 꽃자왈의 2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들 꽃자왈 중에서도 월림~신평 꽃자왈은 총 길이가 12.5km로 도내에서 가장 긴 꽃자왈로 지적되고 있다¹³⁾. 또한 제주도 지방기념물 제10호인 동백동산이 위치하는 선흘 꽃자왈은 선흘 2리에 위치한 서검은오름(454m)에서 흘러나온 용암류로 인하여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서검은오

11) 송시태, 2000, 『앞의 눈물』, 18-28.

12) 현재의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1970년대 이전의 중산간 지역은 해발고도로 볼 때 대략 100~300m 사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중산간 마을들이 해발 100~300m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해발고도로 제주도를 구분할 때는 200m 이하를 해안지역, 200~600m 사이를 중산간 지역, 600m 이상을 산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13) 송시태, 2000, 『앞의 눈물』, 20쪽(꽃자왈 분포도).

13) ① 송시태, 2000, 『앞의 눈물』, 21-31쪽, ② 제민일보, 2002년 12월 21일자(꽃자왈 대탐사: 55회분) - 꽃자왈은 무엇인가.

름에서 폭 1~2km를 유지하면서 북쪽으로 7km 정도의 범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지적된다¹⁴⁾.

송시대·고기원·윤선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꽃자왈 지대의 분포면적을 제시해 보면, 해안지역에서부터 해발 600m까지의 지역 전체면적은 1554.15km²인데, 이 중 꽃자왈 지대는 224.58km²로서 전체면적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한라산을 기점으로 한 지역구분에 의해 검토해 보면, 동부지역 85.61km²(38.1%), 서부지역 73.61km²(32.8%), 남부지역 41.26km²(18.4%), 북부지역 24.10km²(10.7%)로, 꽃자왈 지대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고에 따른 분포면적을 살펴보면, 해발 200m 이하 지역은 111.37km²(49.6%), 해발 200~400m 지역은 68.95km²(30.7%), 그리고 해발 400~600m 사이의 지역은 44.26km²(19.7%)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이러한 구분방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아질수록 꽃자왈 지대의 분포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꽃자왈 지대는 해안지역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해발 100m 이상~500m 이하 지역에 전형적으로 분포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꽃자왈의 기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학술적인 연구가 그다지 많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동원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소 일반론에 치우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중산간 지역이 지니는 특성이나 혹은 중산간 지역이 제주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¹⁶⁾.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중산간 지역에 나타나는 지형적·지질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꽃자왈을 '제주의 허파' 또는 '자연의 허파'와 같이 인간의 '허파'에 비유하며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 '살아 숨쉬는 땅'이라 강조하여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14) 제민일보, 2003년 1월 8일자(꽃자왈 대담사: 조천 선홍꽃<1>).

15) 송시대·고기원·윤 선, 1996, 「앞의 논문」, 68-69쪽.

16)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꽃자왈은 중산간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역에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적으로 해발 100m 이상~600m 이하의 지역을 중산간 지역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꽃자왈의 전형적인 형태가 여기서 설정된 중산간 지역에 많이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있다¹⁷⁾. 그렇다면, 꽃자왈을 이와 같이 부르는 배경에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꽃자왈의 생태적 환경이나 특성을 거론하기 이전에, 꽃자왈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그 분포범위를 신중하게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꽃자왈 지대는 주로 중산간 지역에 초지 및 삼림과 더불어 비교적 넓은 공간적인 범위를 차지하며 전개되어 있다¹⁸⁾. 당연한 얘기지만, 제주도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때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의 중간에 끼여들어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중산간 지역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종합학술조사라 할 수 있는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⁹⁾.

- ① 농·축·임산물의 생산기능
- ② 지하수 함양기능
- ③ 한라산 및 해안지역에 대한 환경적 완충기능
- ④ 해안지역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력 보급기능
- ⑤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자원 기능

물론, 이들 기능은 전체 중산간 지역(589km²) 전체가 지니는 기능이기에 때문에, 꽃자왈이 이들 기능 중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꽃자왈이 특수한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형적·지질적 조건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꽃자왈은 위의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②~③번과 ⑤번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중에서도 꽃자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하수 함양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꽃자왈의 지하수 함양기능에 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 혹은 도(道)를 비롯한 시·군 등의 행정기관에서도 절대적으로

17)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꽃자왈 대담사(1), 제주 생태계 지켜온 영원한 생명력).

18) 최근 연구에 의존하여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의 전체면적(589km²) 중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소개하면(1997년), 초지 45.6%(268.4km²), 산림지 27.1%(161.7km²), 잡목지 14.5%(85.7km²), 밭 5.5%(32.4km²), 과수원 3.3%(19.2km²) 등이다(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64쪽). 여기서는 꽃자왈이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산림지와 잡목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제주도, 1997, 『앞의 책』, 243쪽.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꽃자왈의 ② 지하수 함양기능은 꽃자왈의 지형적·지질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꽃자왈 지대에는 아아(Aa) 용암류라는 하는 점성이 크고 표면이 거친 용암류로 덮여 있는데, 이 용암류의 특징은 상부와 하부에 1~2m의 클링 커층(암석에서 깨진 틈이 많은 층)을 형성하면서 중간에는 치밀한 용암 상태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⁰⁾. 따라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쉽고 저장하기 쉬운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꽃자왈 지대에는 초지성 식물과 교목림 등의 식생이 발달하고 있어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하수를 함양하고 저장하고 있는 제주도내의 대형 대수층(帶水層)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삼다수 생산공장(제주도지방개발공사)이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에 위치하는 배경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표 1〉은 중산간 지역 내에서도 지하수 함양에 관련되는 투수성 지질구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하수를 함양하는 투수성 지질구조는 숨골을 비롯하여 용암동굴 및 튜브, 함몰지 절리계 발달지역, 꽃자왈 지대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공간적 범위에서는 꽃자왈 지대가 압도적으로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꽃자왈 지대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함양하고 저장하는 기능적 차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③ 한라산 및 해안지역에 대한 환경적 완충기능의 측면에서도 꽃자왈은 나름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전하게 잘 남아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삼림지역은 가능한 한 인간활동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취락과 농경지, 그리고 많은 교통로가 개설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해안지역에는 어느 정도 그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이나 자원의 공급이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산간 지역에서도 오름, 초지 및 목장지, 임야 등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꽃자왈 지대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산간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농목업이나 관광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외에 임야나 삼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강

20) 송시태, 2000, 「앞의 논문」, 16쪽.

〈표 1〉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 함양에 관련되는 주요 투수성 지질구조의 분포

구 분	개 소	면 적(km)	비 율(%)
숨 골	180	6.7	4.6
용암동굴 및 튜브	7	1.4	0.9
함 물 지	78	2.9	2.0
절리계 발달지역	360	34.7	23.6
주상절리 발달지역	45	5.1	3.5
절리구조 발달지역	193	17.0	11.5
파쇄대 발달지역	122	12.6	8.6
용암류 접촉지역	186	17.2	11.7
꽃자왈 지역	88	79.1	53.8
클링커층 발달지역	67	4.6	3.1
스코라아층 발달지역	4	0.4	0.3
합 계	970	147.0	100.0

(주 : 면적은 영향권을 포함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62쪽.)

조해서 말하면, 꽃자왈 지대는 해안지역과 산간지역(한라산 부근지역)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인 범위를 유지하면서, 자연과 인간활동 사이의 완충효과(Bumper Effect)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자원의 기능도 꽃자왈 지대는 부분적으로 담당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위락자원 기능의 근본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뿌듯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꽃자왈 지대에 포함되거나 또는 꽃자왈 지대와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숲과 오름 군락과 드넓은 초원(초지와 목장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욕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숲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꽃자왈 지대 자체가 그러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중산간 지역의 오염을 찾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건강을 전제로 한 심신단련과 더불어 주변경관이나 야생화 감상 등 자연으로부터의 체험을 소중히 하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름의 정상에서는 주변에 전개되는 숲과 광활한 초원, 그리고 아름다운 곡선미가 겹겹이 이어지는 오름 능선을 감상할 수 있어,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조망장소가 된다.

자연 속에서의 체험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지대 내의 숲이나 습지, 계곡 및 가시덤불 주변에서, 다양하고 특이한 동식물의 생육상이나 서식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최근에 곶자왈 지대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동부지역의 선홍곶이나 서부지역의 저지곶은 그 좋은 활용사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도민들의 곶자왈 이용실태

1)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곶자왈

곶자왈 지대의 이용실태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보다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던 과거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것도 가능하면, 제주도민들의 상품경제에 덜 의존하던 시절, 바꿔 말하면 자연환경에 의존도가 높던 1970년대 이전의 가정생활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게 곶자왈 지대의 이용실태를 진단하는 일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제주도의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자. 하루 한시라도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당시 제주시나 서귀읍을 비롯한 일부 도시적 생활을 유지하던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자원(資源)을 자연으로부터 획득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하여 농어촌 지역이 도시적 생활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걸쳐야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가집을 이을 수 있는 띠(茅, 새)를 비롯하여 땃감(지들것[거, 커], 지들낭), 마소의 풀(출), 농사용 도구나 집안의 일상용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 먹거리용 산나물이나 약용식물 등 그 수와 종류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물론, 이들 자원은 제주도라면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곶자왈 지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재

료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꽃자왈 지대가 지나는 특별한 환경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제주도의 일상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땀감을 구하는 일이다. 하루 세 끼의 식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겨울철 온돌(굴뚝)용 땀감과 우마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간혹 우마의 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땀감이 필요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항상 땀감마련에 고심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고사리 손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땀감용 솔방울(솔똥)이나 솔잎, 혹은 말라죽은 나뭇가지(삭다리)나 썩은 나무뿌리(낭뿔리)를 주우러 가야만 했다.

그런데 해안마을에서는 해안변이나 가까운 들판에 위치한 야산 혹은 임야로 땀감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주로 부근 임야는 물론, 오름 주변이나 꽃자왈 지대로 들어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노정(路程)은 다소 험할지는 모르나²¹⁾, 땀감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해안마을에서도 겨울용 장작이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위해 특수한 용도의 땀감이 필요할 때면, 집안의 어른들은 도시락까지 준비하여 이른 새벽부터 중산간 지역의 숲 속이나 꽃자왈 지대로 들어가 작업을 하곤 했다.

꽃자왈 지대에는 삼나무나 소나무 등 특정 식생이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주변일대가 완전히 가시덤불이나 잡목림을 이루고 있는 장소도 있다. 또한 오름 능선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해송(海松, 赤松)을 비롯하여 많은 낙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일정한 공간에 터 잡고 있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이나 꽃자왈 지대에 자리잡은 오름은 땀감 사냥에는 더없이 좋은 표적이 되곤 했다. 물론, 그 당시도 나무를 대대적으로 벌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환경과 더불어, 모든 가정이 산과 들로 나가야만 땀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허락 없는 벌채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1) 한 번 땀감을 하러 나가면, 충분한 양을 다 채울 때까지 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며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등짐으로 지고 올 정도의 양을 다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게는 2~3시간 내외에서 길게는 7~8시간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집안에 대소사 때에는 특히 많은 빨감이 필요하다.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단 만들어 놓은 음식도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빨감을 소비해야만 한다. 특히, 대소사 시에는 빨감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장작(薪炭)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배경에서 장작은 필요시에 상품과 같이 판매되기도 했다²²⁾.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장작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중산간 지역의 임야나 꽃자왈 지대에서 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표 2〉는 1929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자료로서²³⁾, 당시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종류별로 추산(推算)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당시의 시대상(時代相)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 2〉에 제시된 많은 양의 장작이나 낙엽, 잡초, 솔잎, 목탄 등을 중산간 지역이나 꽃자왈 지대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꽃자왈 지대에서는 약용식물이나 산나물 혹은 야생열매를 조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가 온 후, 꽃자왈 지대 내 곳곳에는 일시적으로 물웅덩이를 형성하거나 습기를 머금은 장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장소에는 식용 고사리, 고비(고배기), 양하(양에) 혹은 달래(깽마농) 등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봄철에 뜬 온 이들 산나물은 가정마다 한가지 정도는 반드시 식탁에 오르곤 했다. 특히, 고사리는 많은 양을 채취했다가 오일시장 등에서 팔거나 집안의 제사 등에 긴요하게 사용하기도 했으며, 양하나 달래는 삶아서 무침류 또는 절임류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데 유별나게 애용되는 대상이었다. 특히, 고사리 꺾는 일은 요즘에도 봄철만 되면 여성들의 망중환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되고 있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봄철 소일거리 중의 하나였다.

꽃자왈 지대에는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 칩, 오갈피, 더덕, 마(麻, 삼마), 쑥, 하늘타리(하늘레기), 인동초(인도꼬장) 등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들도 많다. 이것들은 해안 지역의 임야지 등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기는 하나, 꽃자왈과 같이 사람들이 많

22) 장작은 '바리(把)'라는 단위로 팔고 사는데, 대개 1바리는 장작 30개를 가리킨다. 그리고 '바리'는 다소 한 마리에 실어 나올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1바리에서 장작의 규격은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한 사례를 제시하면 굵기는 어른의 팔뚝 정도이고 길이는 1자반(약 45cm) 정도이다. 아울러 장작의 판매사례를 보면, 1971년 애월면 신업리에서는 1바리 당 3,000원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할 수 있었다(2004년 2월 15일(일), 성봉추(71세, 여)씨와의 인터뷰 결과임).

23) ① 朝鮮總督府,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其二) 濟州島』, 135쪽 ② 普生永助 著·우당도서관 譯, 2002, 『調査資料 第29輯 濟州島生活實態調査』, 110쪽.

〈표 2〉 1929년경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종류와 추정 소비량

취사용 및 우마의 사료 풀이기용		온 돌 용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貫)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貫)
솔 잎	500,000	솔 잎	500,000
장 작	15,000,000	장 작	800,000
잡 초	5,000,000	잡 초	1,000,000
곡류짚/깎지	10,000,000	곡 류 짚	2,000,000
석탄/연탄	2,000	낙 엽	1,000,000
낙 엽	1,000,000	말린 말뚝	소비량 미상
목 탄	400,000	합 계	5,300,000
합 계	31,902,000		

(자료 : 朝鮮總督府,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其二) 濟州島』, 135쪽.)

이 다니지 않는 장소는 평소에 채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크고 굵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서 봄철 중산간 지역의 들녘에서는 산나물과 야생열매를 따는 남녀노소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꽃자왈 지대는 이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짙레순(뚱고리), 청미래덩굴순(맹계순), 두릅나무순(들굽순) 등 식물의 줄기와 순 그리고 모람, 맥문동 열매(마망구술), 상동나무의 열매(삼동), 산딸기(탈), 으름(줄갱이), 보리수 열매(볼래 또는 보리볼래), 오미자, 구기자, 시로미 등 상당히 많은 식물의 열매를 거두어들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미 연구된 자료에서 야생식물을 이용한 음식의 일부를 열거해 보면 쑥밥(속밥), 떡쑥밥(본속밥), 조릿대열매밥(대밥), 소나무껍질죽(송피죽), 쑥죽(속죽), 풀죽(들풀+밀가루), 쑥범벅(솟범벅), 느티나무범벅(누룩양범벅), 고사리국, 닭의장풀국(고낭귀국), 질경이국(배체기국), 개자리국(개자리풀+된장), 냉이국(난시국), 두릅나무순무침(들굽순무침), 달래김치(평마농김치), 계피장아찌(제피지) 등을 들 수 있다²⁴⁾. 여기에 제시한

24) 김순이, 1996, 『救荒植物』, 382-428쪽(濟州道, 『濟州의 民俗(IV) 衣生活·食生活·住生活』).

음식의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꽃자왈 지대에서 채취할 수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

한편, 꽃자왈은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이기는 하나, 이곳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우마의 먹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는 가축들이 풍우설(風雨雪)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꽃자왈은 방목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2) 4·3 사건과 꽃자왈

꽃자왈 지대는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하여 뼈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꽃자왈 지대에는 그 구성요소에서 살펴보았듯이 숲, 오름, 궤, 동굴, 계곡, 습지 등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꽃자왈 지역내의 궤와 동굴은 지역주민들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는 많다. 이러한 상황은 4·3 사건이 발생했던 1948년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더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 꽃자왈 지대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경~안덕 꽃자왈 중 거의 월림~신평 꽃자왈과 상창~화순 꽃자왈 지역 사이에 자리잡은 동광리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광리(東廣里)는 안덕면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로 4·3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삼밭구석(麻田洞, 당시 45호), 무등이왓(舞童洞, 당시 130여 호), 조수궤(6호), 사장밭(3호)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마을의 북서쪽으로는 돌오름(도너리오름, 439.6m)을 기점으로 하여 월림~신평 꽃자왈이 전개되고, 동남쪽으로는 상창~화순 꽃자왈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4·3 사건 당시 난리를 피해 꽃자왈 지대로 피신하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이미 조사된 것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²⁶⁾.

- ① 군인들은 무등이왓에서 학살을 마치고는 학교가 있던 간장리로 왔다. 간장리의 10여 호를 불태운 군인들은 간장리 서쪽에 있는 삼밭구석을 둘러보지도 않고 내려갔으므로 삼밭구석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삼밭구석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마을을 떠

25) 강만익,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63쪽.

26) 강태권, 1998, 「동광리—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궤」, 59-123쪽(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제주 4·3 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나 도너리오름(돌오름) 근처의 꽃자왈 속에 숨어 있었다. 동광리의 맨 위쪽에 있던 마을인 조수곶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인근에 있는 터진곶에 숨었다. 터진곶에는 40여 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굴이었는데, 높은 지형에 자리하고 있긴 하였지만 입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그 터진곶에는 조수곶 사람들만이 아닌 무등이왓의 사람들도 와 있었다²⁷⁾.

- ② 큰넓곶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곳이 막연해졌다. 게다가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옷이나 신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들에게 흑한의 눈 덮힌 산은 바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학살이나 다름없었다. 큰넓곶 근처의 꽃자왈에서 희생된 사람은 임흥선(林興善, 당시 67세) 혼자였다고 한다. 꽃자왈에서 죽어 그를 묻을 수 없으니 눈 위에서 굶주린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얘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넓곶을 나와서 돌오름 근처의 초기밭(표고버섯 재배지)으로 갔다²⁸⁾.

이상의 인용문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동광리 주민들은 4·3 사건 당시 난리를 피하기 위해 꽃자왈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도너리오름(돌오름)'과 '큰넓곶'은 월림~신평 꽃자왈에 속하고 있으며, '터진곶'은 상창~화순 꽃자왈의 바로 북쪽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큰넓곶'과 '터진곶'은 모두 용암동굴이다. 특히, '큰넓곶'에는 동광리 주민들 120여 명이 50~60일 동안이나 숨어 지냈던 동굴로서, 발굴 당시만 하더라도 4·3 사건 때 사용했던 생활용기들이 굴 내부에 널려 있었다고 한다²⁹⁾. 안타까운 사실은 동광리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주변부 꽃자왈 지대로 난리를 피해 몸을 숨길 수는 있었으나, 4·3의 광풍이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로 인해 결국 160여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⁰⁾.

한편 동부지역의 꽃자왈 지대에서도 4·3 사건 당시 피신처로 이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가족단위나 작은 규모의 마을단위로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에는 꽤나 동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지역의 꽃자왈 지대나 그 부근의 동굴을 이용하여 몸을 피신했던 사례를 일부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¹⁾.

27) 강태권, 1998, 「앞의 논문」, 82쪽.

28) 강태권, 1998, 「앞의 논문」, 94-95쪽.

29) 김동만, 1999, 「4·3 유적, 유물의 현황과 그 보존대책」, 66-70쪽(제주 4·3 연구소, 『영상으로 보는 제주 역사 유적』—제주 역사 유적의 보존, 복원과 그 대책—).

30) 강태권, 1988, 「앞의 논문」, 120쪽.

31) 여기에 실린 인용문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일부의 원문은 완결된 문장체로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③ 다랑쉬굴 : 1992년 제주 4·3 연구소에 의해 11구의 시신과 많은 피신유물이 발견된 곳. 현재는 입구가 폐쇄되어 (굴 안을) 답사할 수 없다³²⁾.
- ④ 검출굴 : 덕천마을 위쪽 검출지경에 있는 굴로써, 지하 10m 내려간 후에 굴이 형성되어 있음. 굴속에는 당시 흔적인 방어용 돌무더기와 옹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음³³⁾.
- ⑤ 반못굴·뱅뱅디굴 : 선흘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피신했던 곳. 1948년 10월 27일(음) 토벌대에 발각되어 주민 80여 명이 희생됨³⁴⁾.
- ⑥ 왕모루곶은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가는 길 중간지점에 위치한 동원(東院) 뒤 쪽에서 교래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꽃자왈이다. 지금까지 크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4·3 당시 천연림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또한 용암작용이 활발했던 지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어서 4·3 당시 대토벌 시기에 왓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토벌대의 눈을 피해 피신처로 삼았다³⁵⁾.
- ⑦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가 토벌대에 의해 불탄 이후 주민들은 선흘곶에 있는 목시물굴, 도톨굴, 대섭이굴과 웃밤오름 동남쪽의 뱅뱅디굴 등지에 숨어 살았다. 이곳 대섭이굴은 입구가 넓은 굴이다. 따라서 장기간 은신생활을 할 수는 없었고 임시로 몸을 숨기던 곳이었다³⁶⁾.

이상과 같이 동부지역의 제한된 몇 사례를 제시하였지만, 이 외에도 4·3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꽃자왈 지대를 이용했던 사례는 많이 보고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꽃자왈 지대 내에 수많은 퀘(인용문 ①~②)와 동굴(인용문 ③~⑦) 또는 인적이 드문 숲(인용문 ⑥: 왕모루곶)이 분포하고 있어서, 중산간 마을은 물론 해안마을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및〈그림 4〉). 그 배경에는 같은 퀘나 동굴이라 할지라도 꽃자왈 지대 내에 자리잡은 것들은 주변부가 가시덤불과 숲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발견해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꽃자왈 지대 안에서는 계절에 따른 온

32) 김동만, 1989, 「앞의 논문」, 65쪽.

33) 김동만, 1989, 「앞의 논문」, 66쪽.

34) 김동만, 1989, 「앞의 논문」, 66쪽.

35)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 4·3 유적 1』—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400쪽.

36)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앞의 책』, 427쪽.

37) 예를 들면, 개인일보 1·3특별취재반, 1991~1997 『1·3은 말한다』(I~IV), 진에원을 비롯하여 제주 4·3 연구소, 1980~1983 『이제사 말했구나』(I·II), 현웅, 또는 1·3 피해마을의 『마을지』 등에도 많은 인명피해 사례와 더불어 꽃자왈 지대 내 퀘나 동굴 등의 이용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보고한 『제주 4·3 유적 1』—제주시, 북제주군—(2003년, 도서출판 각)에는 그 실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림 3〉 세화리 다랑쉬굴 주변

[유적지 탐사에 나선 사람들이 제주 1·3 사건 때 11명이 희생된 다랑쉬굴 앞에 서 있다. 현재 다랑쉬굴은 폐쇄되어 있고, 그 앞에 표식만 세워져 있다. 우리 세대에 결코 잊어서는 안될 곳이다.]



〈그림 1〉 꽃자왈 지대 내의 동굴(대십이굴)

[선홍 꽃자왈 지대에 위치하는 대십이굴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동굴 입구가 비교적 넓은 편이며 정면으로 들어가면 동굴은 왼쪽으로 길게 이어진다. 동굴 안에는 용암류로 인한 울퉁불퉁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어 안으로 진입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갓 식용열매나 과일, 산나물 등을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말하자면, 주민들은 꽃자왈 지대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환경적 측면에서의 꽃자왈

꽃자왈은 단순히 현세대의 기준에서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야 할 자연자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 꽃자왈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한 가치의 환산방식이 논의해서는 곤란하다.

꽃자왈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형태³⁸⁾의 자연자원이자, 원경관적(原景觀的) 요소이다. 제주도라고 하는 작은 섬 지역을 벗어나면, 꽃자왈이라는 특이한 자연경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꽃자왈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수많은 오름으로부터 용암류가 흘러나오면서 특이한 구조의 지형이 만들어졌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무수히 깔리면서 나름대로 자연정원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꽃자왈은 필경 불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과 초지성 식물들이 적응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몇몇 수종의 숲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잡목과 가시덤불만으로 구성된 식물세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꽃자왈 지대 내에서도 습지가 형성돼 있는 곳은 희귀한 동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꽃자왈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식물들이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만하다. 이와 관련되는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반드시 꽃자왈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꽃자왈은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제주도의 공기를 맑게 하고,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정화하며 함양하는 역할만큼 중요한 기능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는 꽃자왈의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무한대의 이득을 챙겨온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꽃자왈은 제주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38)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꽃자왈 대담사<1>, “꽃자왈, 세계적으로 희귀한 형태”).

로 자연의 선물을 전달해온 제주환경의 중요한 실체이며 자연자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인 순환기능을 통해 생활에 이로운 도움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곶자왈이 전부 개발 대상지로 편입되어 여기 저기 파헤쳐진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곶자왈이 주는 선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연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곶자왈을 이용해 온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며, 나아가 환경적인 이용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들 스스로는 이용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했지만, 곶자왈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연순환의 논리로 제주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일조해 왔다.

이제 곶자왈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현세대에서 멈추게 해서 안 될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곶자왈은 제주도의 자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항시 존재하게 함으로써, 후세대들의 곶자왈 이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현세대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명언 속에서, 진정 우리들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구현시켜 나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볼 때라 여겨진다.

4. 맺 음 말

지금까지 과거시점에서 제주주민들의 곶자왈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 되는 두 가지 소주제를 결부시켜 곶자왈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하기보다는, 최근에 잘 알려진 선홍곶 개발에 대한 필자의 시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선홍곶은 동부지역에 위치하는 선홍 곶자왈(넓게는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홍곶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선홍곶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홍곶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묘산봉관광지구」로 선정되면서 주목받기 시

작하였다.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 받은 주식회사 '에니스'는 2004년 2월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을 받고, 200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주) 에니스의 사업내용을 구두(口頭)로만 전해 들으면, 머리가 절로 굽혀질 정도의 화려한 꿈으로 가득 차있다. 선홍곶 내에 유스호스텔, 골프콘도, 관광호텔 등의 숙박시설, 국가대표 훈련시설, 골프장(36홀), 승마장 등의 운동오락시설, 태권도공원, 생태예술공원, 생태관광지구, 영상문화단지, 테마박물관 등의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다³⁹⁾.

한국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지대를 밀어내고 운동과 오락을 즐기고, 자연생태와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욕심이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듭 주장하지만, 자연의 생성물과 인간의 창조물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오래 두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인가. 선홍곶의 나무를 잘라내고, 곶자왈의 땅을 파헤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 선홍곶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한국의 자연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자연을 없애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곶자왈의 가치를 논의했듯이, 자연환경은 손익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자연의 가치는 순환의 논리 의해 인간에게 이득과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환경적 가치만큼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점은 선홍곶을 포함한 곶자왈 지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대개 환경적 가치를 큰 가치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점이 환경(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시발점이다.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자연이 주는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재빨리 개발의 부당성에 맞서지 않는다면, 선홍곶은 우리세대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현세대인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다.

선홍곶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소중한 보배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조속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홍곶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보전할

39) 제주환경운동연합, 2003, 「한반도 최대·최후의 상록활엽수림 선홍곶을 찾아서, "선홍곶을 생명의 숲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2003 시민 생태기행 자료.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지역이지, 어떤 형태의 개발이 좋은지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댈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⁴⁰⁾. 제주도의 자연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보전해온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선홍곶이 제주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고의 전환을 위해 적절한 반성을 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강태권, 1998, 「동광리—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계」,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 편, 『제주 4·3 유적지 기행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 김동만, 1999, 「4·3 유적, 유물의 현황과 그 보존대책」, (제주 4·3 연구소, 『영상으로 보는 제주 역사 유적』—제주 역사 유적의 보존, 복원과 그 대책—).
- 김순이, 1996, 「救荒植物」, (濟州道, 『濟州의 民俗(IV) 衣生活·食生活·住生活』).
- 박기원·외 6인, 2003,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도발전연구원.
- 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지(하권)』.
- 善生永助 著·우당도서관 譯, 2002, 『調査資料 第29輯 濟州島生活實態調査』.
- 宋成大, 2000, 「지리적 기초」, 『北濟州郡誌(上)』, 북제주군.
-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시태·고기원·윤 선, 1996,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구조와 곳자왓 지대에 관한 연구(1)」, 대한지하수환경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자료집.

40) 한라일보, 2003년 9월 15일자[한라칼럼]선홍곶을 아시나요(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꽃자왈 대담사: 프롤로그 - 꽃자왈은 무엇인가).
-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꽃자왈 대담사<1>, 제주 생태계 지켜온 영원한 생명력).
- 제민일보, 2002년 12월 31일자(꽃자왈 대담사<1>, “꽃자왈, 세계적으로 희귀한 형태”).
- 제민일보, 2003년 1월 8일자(꽃자왈 대담사: 조천 선홍꽃<1>).
-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1994~1997, 『4·3은 말한다』(1~4), 전예원.
- 제주 4·3연구소, 1990·1993, 『이제사 말함쑤다』(I·II), 한울.
- 濟州道, 1995, 『濟州語辭典』, 濟州道.
-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 4·3 유적 I』—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3, 「한반도 최대·최후의 상록활엽수림 선홍꽃을 찾아서, “선홍
꽃을 생명의 숲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2003 시민 생태기행 자료.
- 朝鮮總督府,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其二) 濟州島』.
- 한라일보, 2003년 9월 15일자([한라칼럼] 선홍꽃을 아시나요(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
합 사무국장)).